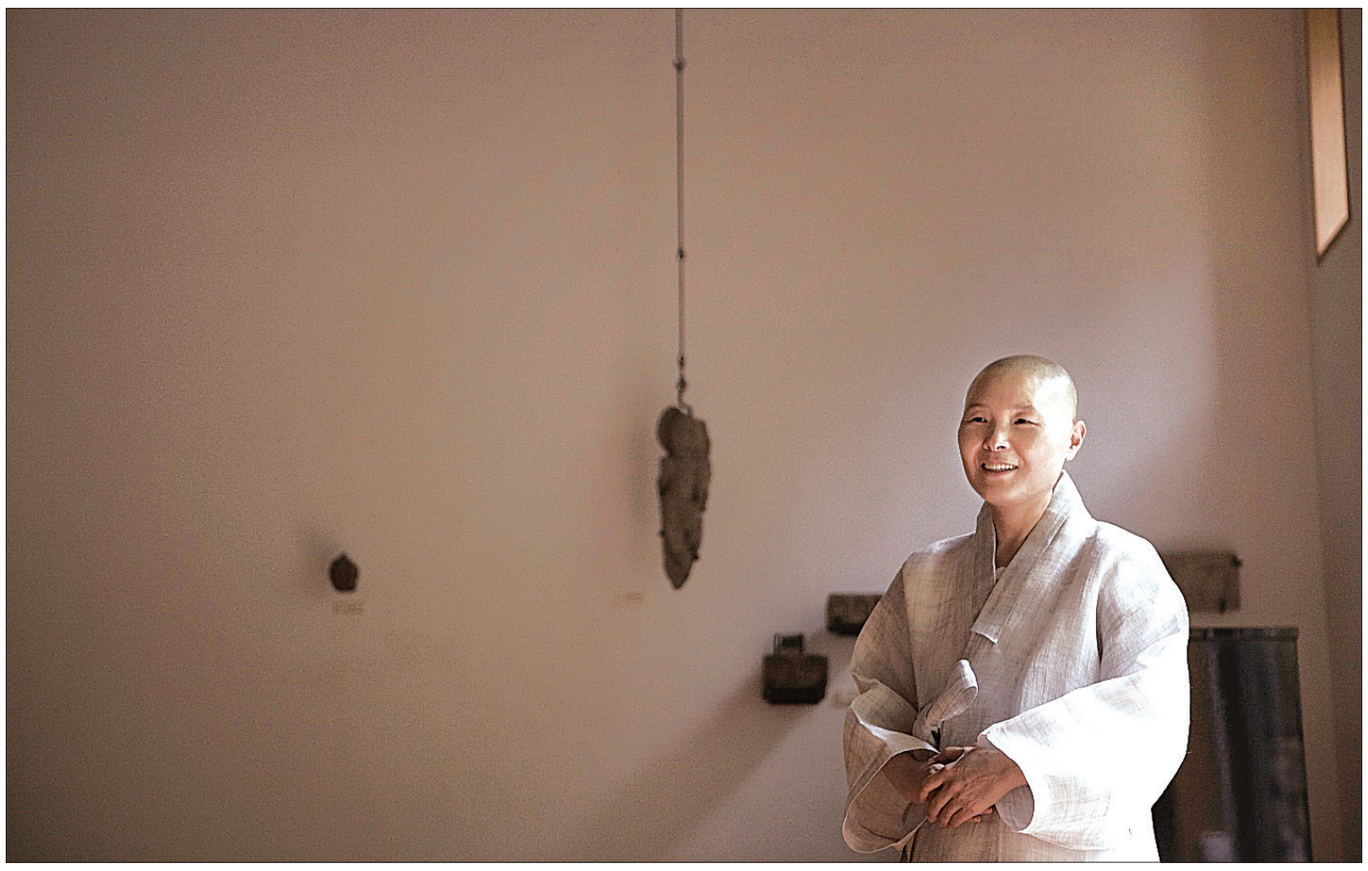
코로나로 지친 국민 치유 글로 어루만져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
정목 스님 지음
모네의 정원 펴냄/1만4천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저자 정목 스님은…서울 삼선동 정각사 주지이며, 불교계에서는 가장 잘 알려진 방송인이다. 저서로는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비울수록 가득하네> 등이있다.

대한민국 최초의 라디오방송 비구니DJ. 대표적인 비구니 힐링 포교사 등의 키워드를 주면 많은 불자들이 정목 스님이라고 답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열여섯 살, 삶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을 품고 출가를 감행한 작은 소녀는 40년이 훌쩍 지나 이제는 '소외된 이들의 어머니' '우리 시대의 힐링멘토' '위로와 치유의 대명사' 등으로 불리며 어느덧 불교계를 대표하는 스님이 되었다.

고통은 줄어들고 사랑은 늘어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자 노력해온 스님은 소외된 사람을 위한 전화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 를 만들었고, 1997년에는 아픈 어린이 돕기 '작은사랑' 을 만들어 현재까지 치료비가 부족한 아픈 어린이들과 그 부모님을 돕는 운동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제 스님은 회갑을 넘긴 나이가 되어 스스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정신적으로는 더 지혜로워지며 남을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이렇듯 정목 스님은 수행자로서 끝없는 정진의 길을 걸어온 한편 치열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대중과 뜨겁게 호흡하며 수많은 사람에게 용기와 지혜를 전해 주었다.

지친 사람들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는 스님, 다른 어른들도 안아 달라며 두루마기를 부여잡으면 품에 안고 토닥거리며 '지금껏 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격려하는 스님. 사람들은 이런 정목 스님에게 엄마 냄새가 난다고 말하기도 한다.

세상과 이별해야 될 순간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며 산다는 정목 스님은 몰래 통기타를 들고 군포교를 하러 다녔을 정도로 매사에 적극적이고 앞서 가는 비구니였다. 특히 방송을 통해 널리 알려진 스님의 목소리는 세파에 다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목소리로 종교를 초월해 각계각층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있다.

이번에 스님의 에세이집 〈잠 못 드는 사람에게 밤은 길고〉에는 바람처럼 가버린 스님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정목 스님을 사랑하는 독자들에게 신선하고 따뜻한 감동을 준다.

출가하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려 써 낸 에세이 '출가하던 날'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명랑하고 낙천적인 스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출가하던 날 들뜬 마음을 스님은 이렇게 묘사한다.

"그때 저는 학교와 선생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갖고 있던 의문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그 무렵이었지요. 이윽고 삭발하기로 한 날 아침, 문중 어른 스님들이 오시고 절집은 가볍게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한 흰 종이를 깔아놓고, 가위와 삭도가 놓여 있는 상 앞에 함께 머리 깎을 사형과 둘이 나란히 앉자, 스님은 시범이라도 보이듯 가위로 어깨까지 내려온 제 머리를 툭툭 잘라내셨습니다. 삭-삭 머리카락 잘려나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고, 그 머리카락이 하얀 상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그때 열여섯 살, 철없던 저는 들뜨기만 했습니다. 가위질하던 손을 멈추고 스님이 하시던 말씀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생각이 바뀌었으면 말하거라. 머리 깎겠다는 저를 염려하는 눈빛으로 보시던 스님은 그렇게 마지막 기회라도 주시듯 말씀하셨지요. 돌이켜보면 그때까지 어린 아이인 저는 그 순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듬성듬성 머리가 다 잘려나간 마당에 그만두고 싶다고 어떻게 그만둘 수 있다는 건지……."

그렇게 어린 나이에 출가해 60평생의 현재까지 스님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을 '출가한 것' 으로 꼽고 있다. 어릴때 부터 남을 돕는 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진 스님은 자비행을 체계적으로 배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중앙대 대학원에 진학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도 했다.

전화상담 기관인 '자비의 전화' 개설
1997년부터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
출판수익금 전액 아픈어린이에 희사

정목 스님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아픈 어린이 돕기 운동인 '작은 사랑' 행사도 1997년 이후 매년 2회씩 서울대 소아병동에 입원한 어린이 환자를 중심으로 백혈병 등 난치병에 걸린 어린이들을 돕는다. '작은 사랑'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함께한 서울대병원 어린이병동 의료진에 의하면 '작은 사랑' 은 재발한 어린이 환자 위주로 성금전달 대상을 선택하고 있으며, 신기한 일이지만 '작은 사랑' 의 도움을 받은 어린이들은 완치율이 높다고 한다.

매년 2회, 총 1억2천~5천만원 정도의 성금을 모아 아픈 어린이를 돕는 정목 스님은 이번 책의 저자 수익금 역시 전액을 아픈 어린이 돕기에 희사할 예정으로, 이미 초판 인세 전액이 아픈 어린이 돕기 계좌에 입금된 상태다.

뛰어난 가르침과 덕 높은 스승이 곁에 있어도, 기도하기 좋은 환경과 상황이 만들어져도 오래된 습관과 집착에 끌려 우리는 순간순간 미혹한 삶을 살아가며 힘들어 한다.

병에 걸렸을 땐 병만 나으면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하지만, 돈이 없어 쪼들린 땐 돈만 생기면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고 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갈등할 땐 이것만 해결되면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한다.

마음은 언제나 뭔가가 결핍되어 있어서 그 결핍으로부터 벗어나기만을 원하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재는 언제나 만족스럽지 못하고, 과거는 후회나 집착 때문에 잘 놓지를 못해 힘들었던 과거를 떠올리면서 오히려 그때가 좋았지하며 어려웠던 시절을 미화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한다.

대한민국 최초 라디오 방송 비구니 DJ
저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일 '출가'
"만족할수 없으면 행복할수 없다" 강조

그렇게 지금 여기, 현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는 마음은 늘 결핍을 만든다.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부족함을 만들고, 무엇인가가 빠진 것 같은 마음이 불만족을 만들어 두리번거리며 늘 행복을 찾기만 한다. 마음이 현재에 가 있지 못하고 오지 않을 미래에 가 있거나 이미 사라져버린 과거에 가 있는 동안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 만족할 수 없으면 행복할 수도 없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그런 결핍을 바로 알아차려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인연 맺은 모든 이들을 소중하게 받들기 위해 기도하며, 지금 내게 찾아온 슬픔과 고통을 스승으로 모시기 위해 기도하며, 그 슬픔과 고통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도 말끔히 사라지기를 발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자고 스님은 책에서 말한다.

책 속의 밑줄 긋기

"나이 들수록 아름다워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칠순을 바라보거나 이미 칠순을 넘긴 사람들이 아직도 욕망에 사로잡혀 이전투구하는 정치판만 봐도 그렇습니다. 정치판뿐 아니라 세상엔 그런 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 하고,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 합니다. 재물뿐 아니라 명예도 마찬가지지요. 교수는 학장이 되고 싶어 하고, 학장이 된 사람은 총장이 되고 싶어 하고, 총장이 된 사람은 또 장관이 되고 싶어 하더군요. 그들은 대중 앞에서 지금까지 쌓아놓은 자신의 명예를 속속들이 검증당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돈이란 천박한 것이고, 명예는 가치 있는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돈이건 명예건 욕망을 통해 쌓아 올렸다면 다 천박한 것입니다. 명예를 얻기 위해 돈 주고 상(賞)을 사는 사람을 보면 그 상이 세속적으로 어떤 권위를 가지건 한 편의 코미디 같아 웃음만 나옵니다."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일 中에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저 역시 정진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정말 알고 싶었고 진리에 대한 갈증은 해가 갈수록 점점 더해만 갔습니다. 불법을 전해야겠다는 의욕만 앞섰을 뿐 저 스스로 절절히 체험하지도 못한 것들을 마치 경전을 암송한 앵무새처럼 외고 다녔던 저는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뭔지 모르는 물고기 같았습니다. 스님, 기억하시는지요? 저 뜨락에 있는 분재를 방으로 가져와 곰팡이를 닦아 주거라. 그때 스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육안으로 보이는 흰 곰팡이만 닦아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일이 이제야 새롭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닦으라는 스님 말씀에 흰색으로 보이는 것들만 열심히 닦아내던 저는 곰팡이와 나를 별개의 것으로 구별 짓고 있었습니다. 닦으라는 마음은 닦을 줄 모르고 그렇게 곰팡이밖에 볼 줄 몰랐던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시절이 지나가고 나자 탁자 위에 놓인 과일을 보다가 홀연 무상無常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절이 찾아왔습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보름이 지나자 과일은 물기가 마르고 쪼그라들며 서서히 곰팡이가 슬기 시작했지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과일은 온몸으로 증명해보인 것입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 하네 中에서〉

문서번호 (2021-01-18)

공 고

(분환신청 / 승려증갱신)

삼보에 귀의 하옵고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 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바, 이런 역경을 딛고 대한불교 원효종에 전통성을 되찾고 원효성사의 맥을 이어가기 위해 위법망구의 정신으로 신심을 내어 주신 스님들의 원력으로(2017카합10083대한불교원효종종정직무대행, 2019비합3003,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결정, 대구고등법원2020라388임시종정선임결정), 2021년 1월 12일자로 이종윤(원호)스님을 대한불교원효종임시종정으로 결정함에 따라 종단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종단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들의 위촉, 임명 또는 임원, 의원 등 모든 직책은 법적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종무행정의 질서를 재정비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갱신업무를 시행하오니 착오 없이 갱신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윤철(향운), 손영채(우석)스님 측의 갱신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갱신하지 않으신 스님들께서도 아래 기간에 맞추어 속히 갱신을 완료하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기간 내에 갱신발급을 신청을 하지 않은 종도들은 공고에 응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월 27일

다 음

◉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 **갱신기간** : **2021년 1월 ~ 4월** (※공고일 부터 3개월)
◉ **주 소** : 경북 경주시 배리2길 34-7
◉ **문 의 처** : 총무원 054)745-3400 / 팩스 054)745-3400 / H.P 010-9388-3883

대한불교원효종 임시종정 **이종윤(원호)**

제 105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중급과정 (6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구병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함

◈ **모집인원** : 30명(선착순)
◈ **개 강 일** : **2021년 3월 2일(화)**
◈ **강의일시** : **매주 화요일, 금요일 오후 5시 ~ 6시 30분(90분) 담임교수 원장직강**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번길 45(낙원동 243-3) 탑공공원 뒷편 ☎(02)741-0495~6